십자가의 삼박자 축복 <1>, 참여

(엡 2:1~7)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둘째, 셋째 박자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박자축복, 삼박자복음이라는 이 용어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창안해 내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 논쟁도 많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글도 여러 방면으로 발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할 때에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름하에 말씀하신 내용과 그 삼박자 축복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하게 제로원복음의 입장에서 단지 조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삼박자 축복이라는 용어를 빌려서 해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그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루터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그럴 때는 마음도 나요, 몸도 납니다. 그렇죠? 포함해

서 총체적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오버랩을 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버랩이라는 말은 '내가 죽은 것이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연합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오버랩하는 의식작용이 24시간 편의점처럼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사업할 때도 공부할 때도, 언제나 모든 활동은 2차 의식 안에서 행하게 되고 1차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의식의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처녀가 너무너무 이상적으로 그리워하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자, 약혼해서 결혼까지의 기간은 천국의 구름 위를 걷는 삶일 것이에요. 이게 이 노처녀에게는 일차적인 의식의 층을 구성합니다. 그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가장 먼저 껴안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각인이 되지요.

돈 좀 못 벌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해도 그렇게 마음에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일차적인 의식을 사랑하는 애인인 약혼자가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벌고, 밥 먹고, 운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취미생활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히고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내 머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친하다고, 친근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부부관계건 자식관계건 누구라도 주님의 살갗이 다 찢겨져 나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모두 떨어져 나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손 댈 수 없고 발로 달려가서 행할 수 없고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다'라는 철저한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삼박자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강 약 약 이런 것처럼 삼박자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내실 때,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분이 영적인 대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장 통에서 정신없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삶 속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이고 진심으로 그러한 노력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원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삼박자 축복의 첫 박자는 뭡니까? '참여'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참여'라는 것입니다. 참여.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쉽게 말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이 우리 몸이 죽기 전까지는 참여되지가 않는 천국으로 이해됩니다. 미래에 갈 곳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천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게 뭐죠? 죽었다는 게 참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좀 있다 보겠습니다만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현재 앉아있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앉히신 게 이전에 있었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 하늘에 참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참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지금 참여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참여하고 있고, 직장에 참여하고 있고, 돈 버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참여하고 있지 천국에 참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천국에 참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회의석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회의석상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지금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이냐 하면,

제가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영주권이 유지가 되고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려면 그 캐나다 영토 안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5년 안에 3년 이사의 기간을 머물고 있어야 되지요. 250주 중에 150주 이상 그 영토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영주권이 유지되고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3년을 못 채운 채로 나와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자연히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 캐나다라고 하는 영토에 얼마든지 시민권에 준하는 영주권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캐나다라고 하는 영토에서 빠져 나와서 캐나다의 삶에 참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죽은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이 자연히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게 천국의 시민권이라면 아직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영주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주권자도 지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을 입은 자들답게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왜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답게 지금 하늘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직장에만 참여하고 있고, 가정에만 참여하고 있고, 온통 마음이 이 세상일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해 죽은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그런데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늘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에 대해 죽은 것이라면 구원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이냐면 구원을 받은 자로써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죽은 상태로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의 결과를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 죄와 허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 앉히운 바 된 그러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 삶의 현장과 하늘 사이가 공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한 게 뭐예요?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린 것이에요, 마음을.

언젠가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장을 가리키면서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아플 때 몸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세 가지 차원이 겹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몸의 차원이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맺어지고 사람과 만나고 회사 나가고 직업 활동하고 장사하면서 삽니다. 몸을 통해 대통령도 하고 교수도 하고 지게꾼도 합니다. 이렇게 몸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차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차원이 뭐냐? 마음의 차원이 바로 공중이라는 거예요. 이 공중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공중에 있으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육체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하나님 쪽을 향했어야 되는데 육체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가 보는 것, 내 몸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내 마음이 좌우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돈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갖고 싶어집니다. 눈으로 예쁜 여자를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눈으로 자식을 봅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가 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이고 죄와 허물인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과녁을 빗나가는 화살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과녁이 빗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있으면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화살이 날라 갔어야 할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게 됐습니다.
방향이 틀려져 버렸어요. 과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쪽을 향하게 된 이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 코 입으로 느끼고 살갗으로 느끼는 이 세상에 마음이 좌지우지 흔들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게 진실입니까? 자식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되지요? 그 걱정이 죕니다.
걱정이 죄예요, 근심이 죄예요. 그리고 몸을 통해 느끼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야 됩니까?

하늘로 향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를 향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모두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행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또, 육체와 몸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즉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마음이 움직인 것 아닙니까?
육체에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육체가 보고 느끼고 접촉하는 이 세상에 대해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에 끌려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있고 하늘을 못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주님과 오버랩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몸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은 그 모습이 이제까지 땅에서 몸을 통하여 느끼는 대로 좌지우지 되고 있던 우리의 죄악 된 몸이 죽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내 몸이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몸에 끌려가고 있던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에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참여 되지 않고 세상에만 참여하고 있던 너희를 - 죽은 거지요? 그런데 살리셨도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따라서 승천하는 겁니다. 뭐가? 공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몸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승천한 겁니다.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비행장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 우리의 가족이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송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식이 미국 가 있으니까 온통 마음이 다 미국에 가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비가 많이 왔다는데 내 자식이 괜찮을까, 뉴욕에 눈이 왔다는데, 뉴욕에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내 자식이 괜찮을까, 온통 마음이 뉴욕에 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라서 주님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뭡니까? 부모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왜? 부모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애인의 주님이 누굽니까? 애인이에요. 그 애인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업가의 주님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이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주님이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죽고 몸을 통해 접하던 그 마음의 주인들에 대해서 죽고, 이전 주인들에 대해 죽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야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좇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앉힌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서 같이 승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지금 마음이 승천해야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첫 박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몸에 묶여 있을 때는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접촉하며 느꼈습니다. 몸을 갖고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같이 살고, 자식이 자식인 줄로 느끼고, 돈이 좋은 것으로 느끼고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런 걸 따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몸이 있으므로 이 세상을 감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따라 천국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에 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돈 문제 때문에 매여 있으면 돈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마음이 지금 천국에 참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앉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하여 세상을 느끼듯이 어떻게 천국을 느낍니까? 마음이 천국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보는 몸의 눈과 세상을 듣는 몸의 귀 대신에 하늘을 보고 듣는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를 전념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하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갔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 오버랩 될 때에 내가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승천하는 거예요. 주님과 죽음에서 연합했으니까 부활에서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 같이 하는 거지요. 하늘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허물과 죄, 내 맘의 방향이 잘못되어 세상을 향할 때는 하늘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 참여하느라고…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는 캐나다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권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대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일이 벌어져도 자식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참여합니까? 자식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주님께 참여합니다. 천군천사들만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몸이 놓여 져 있는 상황에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마음이 몸을 통하여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 환경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몸이 위태하면 마음이 같이 위태합니다. 몸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마음이 같이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십니다. 왜? 똑같이 한 공간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하늘의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마음의 주님은 하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 몸이 풍랑을 만나도 잠을 잡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무서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처한 환경에 마음이 같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몸에 대해 죽고 몸이 처한 환경에 대해 죽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불참해요, 불참.
이 세상에 불참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불참합니다. 불참하고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

늘에 참여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내일 죽는다니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축복이지요. 죄 사함도 왜 받습니까?
바로 천국에 참여하려고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참여한 자들의 장점은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은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몸에 마음이 묶여서 살아갈 때는 몸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았어요. 애인 찾았지요, 돈 찾았지요, 건강 찾았지요, 성공 찾고 형통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하늘로 가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지요. 돈 벌 듯이 벌어야 되요, 뭘 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법니다. 하나님과 자꾸 자꾸 깊이깊이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는 걸 버는 거예요. 주님과 많이 친해지는 걸 버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싸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누가 24시간 편의점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오버랩 되어 있느냐? 오버랩 되어 있는 동안만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에 참여합니다.

하늘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 1년 하고 3년 4년 햇수가 늘어나면서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이 십자가에 오버랩 되어 있는 시간만큼 친해지고 많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돈이 이 세상에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가 돈이 널려져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긁어모으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긁어모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애인과 약혼한 노처녀가 그것이 첫 번째 기분이 되어서 그 기분 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참여된 자로서 하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와 건강과 형통 이런 일은 2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삼박자 축복, 첫째 박자가 하늘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버랩 되면서 하늘의 참여합니다. 하늘에 참여하는 것은 천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참여해야 되요. 아니면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 오래 있으면 영주권이 박탈되듯이 구원 받은 자의 혜택과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예뻐지고 이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늘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애인이시고 우리 남편이시니까,
마음이 승천하실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첫째 박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몸이 살고 있는데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며 또 환경이 있는 가운데 내가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돈 없는 환경, 돈 있는 환경, 성공하는 환경 실패하는 환경, 이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두 번째 박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게 세 번째 박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삼박자 축복을 하는 동안에 진짜 구원 받은 자의 감격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수 있는 삼박자 축복 중에 첫 번째 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하늘에 대해서는 죽고 천국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참여함이 끊어지고, 불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불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늘에 앉히운 바 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